

□ 카드 산업 회복 기대, 시기상조다

1. 최근 카드사 경영 동향

- 최근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, 카드사의 수익성이 개선될 뿐 아니라 카드 자산의 연체율 하락으로 여신 건전성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
- 2004년 4/4분기 카드사 당기 순이익이 흑자 반전된데 이어, 2005년 1/4분기에는 6개 카드사 중 5개 카드사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함
  - 다만, 대규모 대손 충당금을 적립한 삼성카드를 포함시킬 경우 국내 전업 카드사의 2005년 1/4분기 당기 순손실은 1조 1,230원임
- 또한, 여신 건전성을 반영하는 카드사 연체율은 2003년말의 13.6%에서 2005년 1/4분기말 8.2%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임
  - 대환대출을 포함한 연체율은 2003년말 28.3%에서 2004년말 18.3%, 2005년 1/4분기 말 15.7%로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음

< 카드사 주요 경영 현황 >

	2002	2003		2004				2005.1/4	
		상반	하반	1/4	2/4	3/4	4/4		
당기순이익 (십억원)	496	-2,759	-7,715	-93	-1,421	-82	255	-1,123 <sup>1)</sup>	
연체율 <sup>2)</sup> (%)	대환 포함	-	25.3	28.3	27.5	25.1	23.1	18.3	15.7
	대환 제외	6.6	9.6	13.6	12.0	10.8	11.6	9.0	8.2

자료 : 금융감독원

주 1) : 대규모 대손충당금 적립에 기인한 삼성카드의 적자(1조 4,881억원)를 제외할 경우, 흑자를 기록한 나머지 5개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3,650억원임

2) : 연체율은 기말 기준임

- 한편,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카드사의 대규모 출자전환이나 유상증자 등의 영향으로 카드업계의 자본 적정성도 크게 개선되고 있음
  - 자본적정성을 반영하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002년말 12.5%에서 2003년말 -5.5%까지 하락한 뒤, 2004년말 9.8%까지 크게 상승함

2. 카드 경영 개선의 주요 원인

○ 최근의 카드사 수익성 개선은 수익 감소를 상회하는 비용 감소 때문임

- 카드사 영업수익(매출액)은 2003년 하반기 이후 대폭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, 2004년 4/4분기 중 전년동기 대비 -4.1%로 감소폭이 크게 둔화됨
  - 2004년 하반기 이후 카드 이용액은 감소 속도가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, 주요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0.1~0.2%p 가량 인상됨
- 반면, 카드사 영업비용은 2004년 하반기 이후 전년동기대비 65% 이상의 대폭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
  - 2004년 하반기 이후 영업비용이 대폭 감소한 것은 대손상각비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며, 대손상각비의 감소는 카드사들의 부실자산 매각, 연체율 감소 등으로 대손충당금 적립 금액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임

< 카드사 손익 추이 >

(단위 : 십억 원)

		2003		2004			
		3/4	4/4	1/4	2/4	3/4	4/4
영업 (매출) 측면	영업 수익 <sup>2)</sup>	3,630 (-17.3%)	2,205 (-53.7%)	2,411 (-42.9%)	1,962 (-53.5%)	1,874 (-48.4%)	2,115 (-4.1%)
	카드 이용 실적 <sup>2)</sup>	117,316 (-30.7%)	109,547 (-40.5%)	94,100 (-40.8%)	90,026 (-31.5%)	88,885 (-24.2%)	66,768 (-39.1%)
비용 측면	영업 비용 <sup>2)</sup>	5,131 (29.6%)	7,426 (31.0%)	3,732 (-32.7%)	3,573 (-39.3%)	1,831 (-64.3%)	2,329 (-68.6%)
	(대손 상각비 <sup>2)</sup> )	2,993 (78.5%)	5,676 (86.0%)	2,410 (-18.6%)	2,139 (-44.7%)	465 (-84.5%)	1,177 (-79.3%)
	고정이하여신 <sup>3)</sup>	3,471 (92.9%)	3,230 (52.8%)	2,140 (-26.7%)	1,548 (-43.4%)	1,605 (-53.8%)	1,301 (-59.7%)
	대손충당금 요적립액 <sup>3)</sup>	4,440 (112.1%)	3,854 (52.3%)	2,822 (-18.9%)	2,304 (-34.6%)	2,172 (-51.1%)	1,830 (-52.5%)
손익	영업 이익 <sup>2)</sup>	-1,501	-5,221	-1,320	-1,611	43	-214
	당기순이익 <sup>2)</sup>	-1,846	-6,335	-93	-1,421	-82	254

자료 : 금융감독원

주 1) : ( ) 내는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율임

2) : 기간 중 증감액 기준임

3) : 기말 잔액 기준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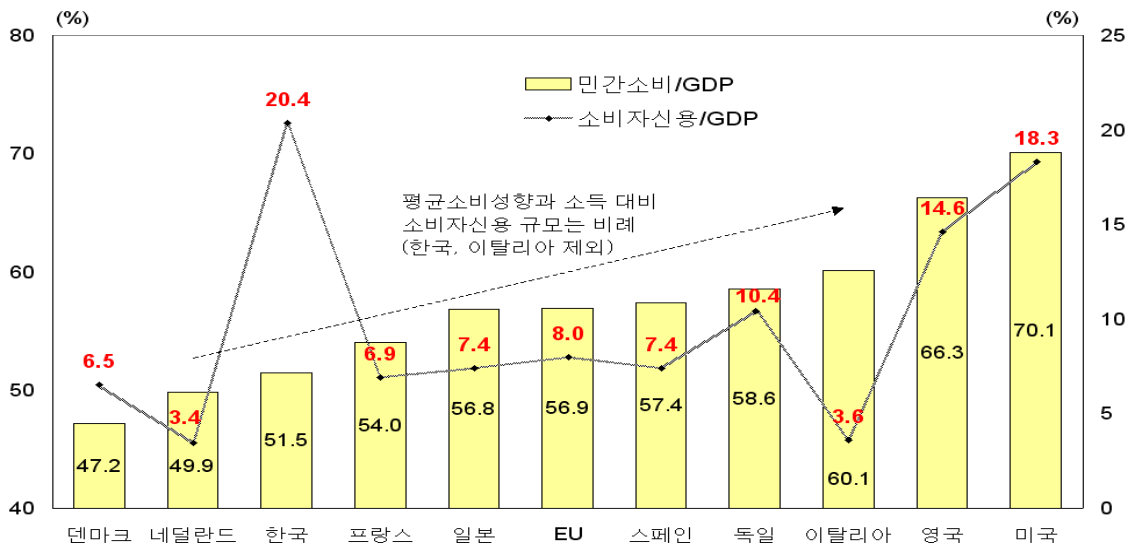
- 카드사 자산 건전성의 개선은 부실자산의 대규모 상각, 카드영업 축소에 따른 신규 부실발생 가능성 약화 등 때문이며, 이는 궁극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자본 유입, 즉 대규모 출자전환과 유상증자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임
- 최근의 카드 연체율 하락은 2003년 LG카드 사태를 전후로 한 카드 발급 기준 강화, 부실회원 정리 등과 같은 무분별한 카드발급 자제로 신규 부실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임
- 자산 건전성 개선을 위한 대규모 부실 상각에도 불구하고, 카드사 자본 건전성이 오히려 나아진 것은 외부로부터의 자본유입 때문임
  - 자산 부실화가 클수록 자산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손 충당금 규모가 커지므로 부채 조달액, 또는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자본 건전성이 약화됨
  - 연체율 상승에 따른 자산 부실화와 그에 기인한(자산 클린화를 위한)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, 2004년 중 LG카드의 출자전환(3.5조원), 삼성카드와 현대카드의 유상증자(1.5조원, 0.25조원) 등으로 카드사 자본여력은 개선됨
- 결론적으로, 최근 카드사 경영실적 개선은 외부 자본유입이 뒷받침된 자산 클린화, 신규 부실 발생 가능성 억제에 따른 반사적 효과 때문이며, 정상적인 카드영업(안정적 자산증가와 연체율 유지)에 기인한 것이 아님

### 3. 불투명한 성장 전망

- 개요 : 카드 경영 정상화의 관건은 안정적인 카드 자산의 증가 여부이나,
  - ① 비대한 소비자신용 규모, ② 현금 서비스의 낮은 경쟁력, ③ 과도한 신용불량자의 존재, ④ 신용평가 시스템 정립 지연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카드 자산의 안정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
- ① 신용축소 압력 지속 : 우리나라의 소비자 신용 규모가 여전히 비대한 상태이므로 연체율 상승 내지 현금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카드이용 축소 압력은 지속될 것임

- 일반적으로 소득 대비 소비성향이 높을수록 소비자신용 규모가 큼
  - 소비자신용은 금융기관 신용대출,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구성됨
- 우리나라는 내수 비중이 낮은 국가에 속하지만, 소비자신용(잔고 기준) 규모는 2004년 말 현재 미국보다도 훨씬 높은 GDP 대비 20% 이상임. 이러한 불균형은 소비자신용 축소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
  - 우리나라의 소비/GDP 규모는 미국, 일본, EU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하위권에 속할 뿐 아니라, 소득 양극화로 인해 소비성향 높은 중간 및 저소득층의 기여도가 줄면서 소비/GDP는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큼
  - 반면, GDP 대비 소비자신용 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.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은 연체율 상승이나 소비자신용 축소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카드사 경영 정상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

< 주요국의 GDP 대비 소비 및 소비자 신용 규모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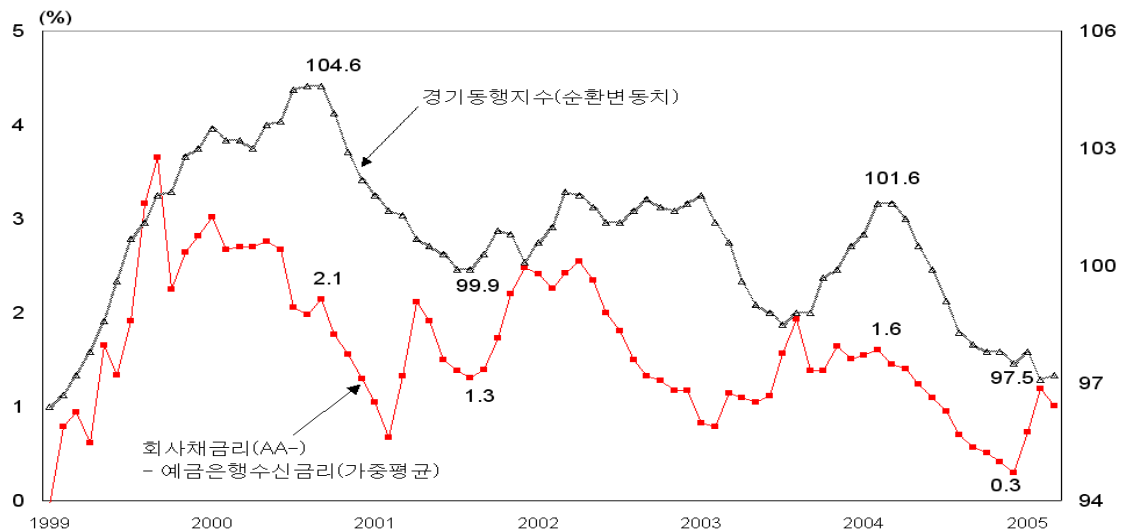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ECB, EUROSTAT, ECRI(European Credit Research Institute), 각국 중앙은행  
 주 : 1) 한국의 소비자신용은 은행 가계대출에서 주택관련대출을 제외한 것과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신용대출 및 판매신용임(기타 금융기관대출은 제외)  
 2) 한국과 미국은 2004년 기준, 일본은 2003년 기준, 나머지는 2002년 기준임

- ② 카드사 현금서비스 경쟁력 하락 : 내수경기가 회복되어 소비자신용이 일시 증가한다 하더라도 은행-카드사간 조달금리 격차 확대로 카드사 현금서비스 경쟁력은 더욱 하락할 것임

- 카드사의 주요 자금조달원은 회사채(ABS 포함)이며, 은행의 주요 자금조달원은 예금, 금융채 등임. 양자간 금리 격차는 경기 동행성을 띠고 있음
- 따라서, 경기가 회복되면 은행과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 격차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은행이 제공하는 소비자신용 상품의 경쟁력이 더 높아짐
  - 즉, 경기 회복시 회사채 금리가 은행 수신금리보다 높아지면서, 카드사 현금서비스의 경쟁력이 은행대출, 마이너스 통장 등에 비해 더 낮아질 것임

< 경기동행지수와 은행-카드사 조달금리 격차 추이 >



자료 : 한국은행

- ③ 막대한 신용불량자의 존재 : 2004년말 기준 공식 신용불량자 수 362만명,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자 100만명 등 경제활동인구의 1/5 이상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정상적인 이윤 창출이 어려울 것임
  - 통신요금, 각종 공과금, 공적보험 연체자를 합칠 경우 신용불량자 수는 1,0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
- ④ 뒤늦은 개인 신용 정보시스템의 도입과 신용평가 회사들간의 정보 공유 회피 가능성 등으로 인해 개인 신용정보 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한 카드사 수익성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

- 우리나라는 뒤늦은 개인 정보 시스템의 도입으로 효율적인 신용정보 시스템이 정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  - 가치 있는 개인 신용보고서(credit report on an individual)가 작성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, 신용 정보회사(크레딧 뷰로)의 도입이 빠른 국가일수록 신용 보고서 작성 수준이 높고 소비자신용 산업도 발달돼 있음
    - ※ 크레딧 뷰로가 늦게 도입되었거나 아직 정착되지 않은 이탈리아, 스페인, 프랑스 등의 국가는 정보 축적률도 낮고 소비자신용 산업의 발달 정도도 낮은 편임
  - 신용 보고서의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개인의 연체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금융기관, 통신사 등으로 방대하게 흩어져 있는 데다, 정보를 보유한 측이 고객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임
    - ※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정보 보유자(credit grantor)의 입장에서는 크레딧 뷰로의 정보를 최대한 필요로 있으면서도,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자신이 가진 고객 정보는 제공하지 않거나 가치 없는(또는, 왜곡) 정보만 제공할 유인이 있음
-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비로소 크레딧 뷰로가 출범하여 효율적인 개인 신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만한 물리적 시간이 크게 부족한 상황임

< 주요국 크레딧 뷰로의 정보 축적 현황 >

	크레딧 뷰로 최초 도입 시기 (년)	신용 보고서 축적도 (만 건)	인구 대비 신용 보고서 축적률* (%)	소비자신용 /GDP (%)	비고
덴마크	1971	260	50.3	6.5	低 소비성향
네덜란드	1965	980	64.1	3.4	“
프랑스	-	-	-	6.9	“
스페인	1994	-	-	7.4	少 정보축적
독일	1927	4,800	59.1	10.4	多 정보축적
이탈리아	1990	260	4.6	3.6	少 정보축적
영국	1960	6,000	104.8	14.6	多 정보축적
미국	1890	60,000	228.1	18.3	“

자료 : Jappelli, T., and Macro Pagano, "Information Sharing, Lending and Defaults: Cross-Country Evidence," *CEPR Paper*, Oct, 2000.

주 \* : 인구대비 축적률은 1996~1997년 기준임

- 우리나라는 금융기관 지분이 낮은 기존 신용평가회사(한국신용정보(NICE) 및 한국신용평가정보(KIS))와 최근에 대형 금융기관들의 참여로 출범한

한국개인신용(KCB)간의 정보 공유 회피 가능성이 높아 개인 신용보고서가 축적되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

- 신용평가회사 설립 등에 국가가 관여하면 사적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 신용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움
- 또한, 신용평가회사 설립 등에 금융기관이 관여하면, 신용평가회사에 관여하지 않은 금융기관들은 경쟁자에게 유익한 고객정보 제공을 꺼릴 수 있음
- 따라서 일반적으로 영국, 미국 등 소비자금융 산업이 발달한 나라의 신용평가회사는 정부, 금융기관 이외의 민간회사에 소속되어 있음

< 크레딧 뷰로의 소유 구조와 신용정보 축적 현황 >

	국유	금융기관 소유(또는, 콘소시엄)의 민간회사	비금융기관 소유의 민간회사	인구 대비 신용보고서 축적률 (%)
덴마크		○		50.3
네덜란드			○	64.1
프랑스	○			-
스페인	○	○		-
독일		○		59.1
이탈리아		○		4.6
영국			○	104.8
미국			○	228.1
한국		○ (최근 설립, KCB)	○	-

자료 : Riestra, "Credit Bureaus in today's credit markets", *ECRI Research Report*, 2002.

- 우리나라는 가계 부문의 과거 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신용평가사(NICE, KIS)와 금융기관 합작으로 최근 출범한 신설 신용평가사(KCB) 사이에 정보 이해상충을 조정할만한 장치가 전혀 없음
- 이용 가치가 높은 개인 신용보고서 축적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

4. 시사점 및 대응 방향

- (시사점) 최근 카드사들의 카드 발급 경쟁이 다시 치열해지고 있으나, 이는 카드사 수익성 내지 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



- 최근 카드사들은 각종 이벤트 확대는 물론, 현금 서비스 금리 인하, 무이자 할부 서비스 제공 등 무리한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음
- 그러나 카드 자산이 크게 성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, 카드사간 과열 경쟁은 카드사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
- (대책) 정책 당국은 과당 경쟁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, 카드사들은 결제 서비스 강화 및 우수 고객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임
  - (정부) 과당 경쟁 방지 및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개인신용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, 개발할 수 있도록 함
    - (과열 경쟁 방지) 카드사의 자본 건전성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, 원가 이하로 소비자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, 가맹점 등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일정한 기준 하에 차단함
    - (정보 공유 의무화) 불량정보 뿐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실적 등 일정한 수준의 우량정보 공유를 의무화함으로써 연체 가능성에 대한 예측 능력 제고
    - (신용 정보보호 법령의 정비) 백화점이나 통신사 등의 신용공여자와 신용평가회사 사이의 호혜적 정보 교환을 장려하되, 이와 관련한 개인 정보 보호법을 정비하여 개인 정보가 오·남용되지 않는 장치를 마련함
  - (카드사) 현금서비스에 대한 과열 경쟁보다는 직불카드나 결제 서비스 부문의 역량을 제고하여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 확대를 유도하고, 마일리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우수 고객을 확보함
    - (결제 서비스 강화) 경쟁력 낮은 현금서비스에 대한 무리한 경쟁은 지양함. 반면, 휴대폰 결제나 인터넷 관련 결제의 신속성을 높이고 거래 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 확대를 유도함
    - (우량 고객 확보) 일정 마일리지를 모두 사용하면 새로운 마일리지를 쌓도록 하는 것보다는, 기여도에 비례해서 추가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장기 우수 고객에 대한 혜택을 강화함

노진호 연구위원 (3669-4031, jhno@hri.co.kr)